



산불 피해를 입은 벤츄라 지역 한인교회 성도들이 더욱 뜨겁게 예수님을 찬양했다.

산불 당했지만 위로와 기쁨 넘친 찬양예배

벤츄라 카운티 7개 한인교회 참여

벤츄라 카운티 지역 한인교회들이 성탄을 감사하며 찬양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2월 10일 오후 5시 벤츄라 카운티 교회협의회(회장 이정구 목사, 총무 남재현 목사) 주최로 새생명교회(승광철 목사)에서 열린 이 찬양예배에는 약 2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본당을 가득 채웠다.

이정구 목사는 “최근 산불로 인해 예배 장소가 변경되는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기쁨을 주셨다”면서 “예배 중에 재난 당한 분들을 위한 특별 합심기도의 시간을 통해 더욱 연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기에라도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헌금이 늘었

다”고 덧붙였다.

이날 찬양예배는 남재현 목사(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의 인도와 새생명교회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됐다. 오정택 목사(주님의교회)가 기도 후 주님의교회가 ‘기쁨의 찬양’이란 주제 아래 (사랑의 왕, 목자들의 축제)로 문을 열었다. 남재현 목사의 마태복음 1:1-6, 23 성경봉독 후 벤츄라감리교회(김민영 목사)가 ‘능력의 찬양’이란 주제로 성탄 찬송 메들리를 선보였다.

이어 이정구 목사(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 후 씨미밸리 한인교회(반채근 목사)가 ‘평화의 찬양’이란 주제로 <가장 빛난 별, 쿵

바야>를 불렀다.

이상영 목사(카마리오연합감리교회)가 봉헌, 합심기도 후 새생명교회(승광철 목사)가 ‘은혜의 찬양’이란 주제로 <모두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를, 카마리오연합감리교회가 ‘영광의 찬양’으로 <은혜 알게 하소서, 복된 주의 날>을, 옥스나드연합감리교회가 ‘축복의 찬양’으로 <찬양하리라, 오 거룩한 밤>을 불러 대미를 장식했다. 마지막으로 참석하신 성도들이 다 함께 ‘참 반가운 성도여’를 부른 후 승광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헌금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벤츄라 지역에 구호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밸리교협을 이끌 임원들

아름다운 연합과 협력 이룬 “밸리교협”

서오석 신임회장, 김선일 부회장 선출

샌퍼난도밸리한인교회교역자협의회가 12일 오전 11시 에브리데이 교회(최홍주 목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단을 선출했다. 회장은 나성평화교회 서오석 목사, 부회장은 마라톤교회 김선일 목사가 뽑혔다.

회장 서오석 목사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밸리교협을 위해서 섬기겠다”면서 “다윗의 칠전팔기의 신앙으로 목회해 온 만큼 동역자들과 함께 교협을 세워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1부 예배와 2부 회무처리 순으로 이어졌다. 문일명 목사(선한목자장로교회)의 인도로 열린 예배는 광덕근 목사(은혜와평강교

회)의 대표기도 후, 서오석 목사가 삼상 30:1-6을 본문으로 ‘절망을 딛고 일어난 다윗’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서정운 목사(새생명교회)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무처리에서 문일명 목사의 사회로 김선일 목사의 회무보고, 나형길 목사(그리움교회)의 회계보고, 임원 선거, 신규 임원 교체, 신임회장 취임, 기타 안건 토의, 폐회가 이어졌다.

문일명 직전회장은 “올해 밸리 지역 교회가 연합해 성탄 예배와 장학금 수여의 은혜를 나눔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새해에도 아름다운 연합과 협력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가주목사회 샘 신 회장 취임 “빛과 소금 되자”

남가주한인목사회 제51대 회장에 샘 신 목사가 취임했다. 12월 10일(주일)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신 회장은 “50대를 넘어 51대 목사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매우 떨리며 걱정도 된다”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목사회가 되고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 속으

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 저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의 취임과 함께 제51대 목사회는, 일단 수석부회장이 없는 상태로 출발했다. 임원으로 부회장에 는 데이빗 리, 김호, 김헬렌, 송인, 심진구, 안효민, 윤건상, 윤태환, 이정현, 이주철, 조병국 목사가 임명되었

고 총무에는 양경선 목사, 서기에는 한대명 목사, 회계에는 조미나 목사가 임명됐다.

올해 목사회는 석 달에 한 번씩 변호사들을 초청해 법 상담 포럼 및 법률 상담 행사를 연다. 건강 세미나와 의료 상담 행사도 석 달에 한 번 열 예정이다. 전통적으로 목사회가 참

여해 오던 삼일절 기념 예배와 육이오 기념 예배도 드리고 원로목사 위로 잔치, 사모 위로 잔치, 청년 찬양 집회 등 다양한 행사와 노숙자 선교, 거리 전도, 단기선교 등 여러 사역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김준형 기자

▶ 남가주한인목사회 샘 신 회장이 지난 11월 27일 총회에서 회장직을 승계한 후 사역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 (562) 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전기계통
 ■ Tune-Ups ■ 10K Service
 ■ Computer Diagnostic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5-3180

LA WILSHIRE! 치유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리고 기적!

VIENE A LOS ANGELES, WILSHIRE
CRUZADA DE AVIVAMIENTO LATINO-COREANO
 PODER DE LA PALABRA DE DIOS
MILAGROS
 PODER DE SANIDAD

ALABANZA POR: K POP CRISTIANA

PASTOR. KIM JUNG HOON

LUGAR : 3405 WEST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ETHIOPIAN CHRISTIAN FELLOWSHIP CHURCH
FECHA : VIERNES 15 DE DICIEMBRE 2017, A LAS 7:30PM SABADO Y DOMINGO 16 Y 17 DE DICIEMBRE 2017, A LAS 7:00PM
CONTACTO : (213) 675-0029

He's Coming to LA Wilshire!!
HEALING POWER
POWER OF GOD'S WORD
MIRACLE

치유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적

Rev. KIM JUNG HOON
 100 MEMBERS OF CHOIR COMING

Location 3405 West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Ethiopian Christian Fellowship Church (구 LA새생명비전교회)

Date FRI, 15, PM 7:30 DEC, 2017
 SAT, 16 - SUN, 17, PM 7:00

Contact (213) 369 - 7905 (213) 806 - 911

HEALING POWER, POWER OF GOD'S WORD, MIRACLE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회자자모신문

이민목회자 자녀들의 아픔 어루만지다 '미주 목회자 선교사 자녀 콘퍼런스' 성황리에 마쳐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 기간인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패서디나 소재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에서 진행된 '미주 목회자 선교사 자녀 콘퍼런스'가 은혜 가운데 마쳤다. '쉼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목회자자모신문(발행인 설동욱 목사)과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이사장 피종진 목사·대표회장 설동욱 목사)가 개최한 이번 콘퍼런스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청년들과 선교사 자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의 삶과 상처를 나누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이번 콘퍼런스 강사로 설동욱 목사(서울예정교회), 박태남 목사(벤엘교회), 김성현 목사(세계비전교회), 윤대혁 목사(사랑의빛선교회), 다니엘 김 선교사(예수세대운동 대표) 등이 나서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

랑을 전했다.

특히 주최 측은 “한국에서는 28회를 진행할 정도로 경험을 쌓은 콘퍼런스지만 한국이 아닌 곳에 사는 목회자 자녀들을 대상으로는 처음 진행하는 것이었기에 그들의 문화 등에 대한 보다 남다른 세심한 준비와 배려가 필요한 콘퍼런스였다”고 했다.

콘퍼런스 기간 중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한 목회자 자녀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고 또 다른 자녀는 “이민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모님을 보는 것이 힘들다”고 했다.

또 스태프 대표로 섬긴 남가주사랑의교회 설성환 전도사는 “콘퍼런스를 준비하면서 '과연 미국 땅에서 이 콘퍼런스에 오는 이들이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 스태프들과 회의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우리들만 모여도 이렇게 행복하

니가, 행복한 콘퍼런스를 해보자는 기대감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했다.

이어 “예상으로 많은 자녀들이 참석하게 되었고, 첫 번째 집회를 시작하고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이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는데, 제 안에 몽클한 감동과 감사가 터져 나왔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함께 모여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시간이었다. 언어와 나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했다.

이번 콘퍼런스를 총괄 진행한 설동욱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한이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은혜로운 콘퍼런스였다”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목회자 자녀와 선교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 시간들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소망장로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20주년 향해 가는 소망 공동체 10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임직식 열려

소망장로교회(성요셉 목사)가 창립 10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12월 10일 주일 오전 10시 45분 교회 본당에서 열었다.

1부 감사예배는 소망교회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 인도와 민병한 장로의 대표기도, 소프라노 이의경 권사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찬양 후 사도행전 11장 19-26절을 본문으로 오영종 목사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오목사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오늘 이민교회와 같다”면서 “흠여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귀한 섬김과 나눔, 배려와 사랑이 넘쳤던 안디옥 교회를 닮으라”고 말했다.

2부 임직식은 성요셉 목사의 인도로 축하 영상 상영 및 소감문을 낭독했다. 이어 성요셉 목사의 안수기도 및 안수례 순을 통해 민성욱 씨가 권사가 되었음을 공표했다.

마지막 순서로 김선웅 목사(겨자씨 성경연구원)의 축하, 교육부·청년·대학부의 축하 찬양 후에 오영종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쳤다.

담임 성요셉 목사는 “10년 전 시작된 작은 교회가 6년 간 똘똘을 선교하고 지역사회 어린이를 위한 여름학교를 운영하며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제 20주년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소망 공동체가 될 것”임을 다짐했다.



기독한의사협이 송년예배를 드렸다.

미주 기독한의사협 송년예배 드려

미주 기독한의사협회(회장 정종오)가 10일(주일) 오후 4시부터 예수마음교회에서 송년예배를 드리고 한의사 무료 보수 교육도 진행했다. 송년 행사에는 엄한광 명예 이사장, 김용훈 이사장, 김성일 초대 회장, 이기미·이옥선 선교사, 박

정민 가나선교사, 정광석 재미영화인협회장, 금병달 커버넌트신학대학장, 박소희 재미한의학 부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보수 교육은 '족두부 담경주치혈의 해부학적 이해'란 주제로 송혁한 의사가 진행했다.

이웃들에게 사랑의 점퍼를

사랑나눔선교회(대표 이춘준 목사)와 창대교회가 올해도 사랑의 점퍼를 나눈다. 최근 제1차로 샌버나디노 공원에서 점퍼를 나누어 준 이후 오는 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제2차로 점퍼와 음식, 커피를 나누어 줄 예정이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951-966-9191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2017 은혜로교회

CHRISTMAS CANTATA

크 리 스 마 스 칸 타 타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7:30

드림링 어린이 중창단부터 Praise Team과 성가대가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며 우리안에는 큰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길 바라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은혜로교회 담임목사 김경환

은혜로 교회
GRACEWAY CHURCH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눅 2:14)

문의 T.(310)787-7766



밸리 지역 목회자들과 이번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성탄 맞이해 찬양과 사랑 나눠요”

밸리교협 성탄 축하 예배와 장학금 수여식 거행

샌퍼난도밸리한인교회교역자협의회(회장 문일명 목사) 주최로 2017년 샌퍼난도밸리 성탄절 축하 예배와 장학금 수여식이 12월 10일 오후 5시 웨스트힐장로교회(오명찬 목사)에서 열렸다.

협의회 부회장인 서오석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예배에서는 오명찬 목사가 대표기도하고 하모세 목사(협의회 서기, 고백하는교회)가 성경을 봉독했다. 이어 웨스트힐장로교회 찬양대가 <기쁨의 소식 전 하세>를 찬양한 후, 문일명 목사가 “Merry Christma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러진 성탄축하 찬양제는 ANC

온누리교회의 His Dream Handbell Choir 팀이 <Joyful, Joyful, Christmas>란 곡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고백하는교회의 남녀 듀오의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We are the reason>의 공연으로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곧 이어 은혜와평강교회가 <고요한 밤, 잠들 빛 오시네>를, 에버그린선교교회와 제일성결교회의 연합찬양대가 <시편 20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등의 곡을 선보였고 성도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진 장학금 시상식에서는 장학위원장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 원로)가 총 15명의 학생에

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김인식 목사는 “밸리 지역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차세대 교육을 위해 섬기고 희생해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귀한 동역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든 행사는 협의회 총무인 김선일 목사(남가주 마라톤교회)의 광고 후 연합찬양대의 “할렐루야” 찬송에 이어 김인식 목사의 축도로 끝났다.

밸리교협은 수년째 성탄절을 즈음해 연합 찬양제를 열고 교회들이 연합해 장학금을 조성해 차세대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빅토밸리 지역 성탄 축하 연합 예배 드려

빅토밸리한인목사회(회장 김송국 목사) 주최로 이 지역 성탄 축하 연합 예배가 12월 9일(토) 오후 5시 새생명한인교회(김송국 목사)에서 열렸다.

이 예배는 김송국 목사가 인도했으며 류창렬 목사(나눔동산교회)가 대표기도하고 연합찬양대가 “거룩한 밤”을 불렀다. 설교는 김성일 목사(빅토빌예수마음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눅7:18-35)”란 제목으로 전했다. 봉헌기도는 강성수 목사(빅토밸리복음교회)가 했으며 축도는 고승경 목사(필렌중앙장로교회)가 했다. 모든 행사를 마친 후, 친교를 위한 기도는 고광덕 목사



김성일 목사가 연합 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

(한인성안교회)가 했다.

빅토밸리목사회는 오는 2018년 1월 8일(월) 오전 11시 빅토밸리복음교회에서 이 지역 단체장들과 성도들이 함께 하는 신년하례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남가주장로협이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남가주장로협 정기총회 개최

신임 회장에 김용식 장로 인준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가 12월 10일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서 정기 총회를 열었다. 이 총회에서 전 회기 수석부회장이었던 김용식 장로가 회장에 인준됐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하기연 장로가 대표기도했으며 최경환 목사(시온성결교회)가 “하나님의 일”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광배 장로의 헌금 기도 후 최경환 목사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다.

이어 지난 사랑 나눔 음악회 수익금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다. 탈북자를 비롯해 여러 선교 단체와 사회

구제 단체에 기금이 전달됐다. 총 23개 개인 혹은 단체가 기금을 받았다.

총회는 회장 한철수 장로의 사회로 직전회장 이창건 장로가 기도하며 시작했다. 서기 노수길 장로가 전회의록을 낭독하고 수석부회장 김용식 장로가 사업 보고했다. 감사 이영수 장로가 감사 보고 한 후 회계 김광배 장로가 회계 보고했다. 이어 증경회장 최성근 장로가 김용식 수석 부회장이 회장으로 공천됐음을 보고했고 회원들은 박수로 회장을 추대했다. 총회는 증경회장 조선환 장로의 폐회 기도로 마쳤다.



예비역 기독교인들이 정기 총회와 송년예배를 개최했다.

예비역기독교인회 정기총회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남가주지회(KVMCF SC)가 지난 12월 9일(토) 오전 11시 영생장로교회에서 정기 총회와 송년예배를 개최했다.

김회장 신임회장, 최청학·차기학 부회장 등이 임명됐으며 나머지 임원진은 유임됐다.

1부 모임에서 이기흥 목사는 “늘

라운 그 이름(사 9:6-7)”이란 제목으로 설교했고 김혜성 목사가 축도했다.

김회장 신임회장은 “자유 대한의 축복을 지켜 가는 기도 모임, 보국 모임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최청학 부회장 323-734-2691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일 해결을 한 달에 남려 드리겠습니다. · 친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철저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미디어벽,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현수막

미주한인교회 **송구영신예배** 2017.12.31 주일 저녁 10시 30분 비전센터 본당

2018 교회표어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

성탄 축하예배 Merry Christmas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45>

아버지학교를 선교의 도구로

필자는 두란노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후 지난 10년간 매년 아버지학교를 섬기고 있다. 아버지학교를 통해 가정에서, 교회에서의 참다운 아버지상이 어떠한지 배웠다. 아버지에게 대하여 가르쳐 주는 곳이 없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배우이나 수련 없이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을 잘 알지 못하고 가정 생활을 하다 보니 가족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기 일쑤이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아버지학교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역할, 사명, 특권과 영향력 등에 관한 말씀을 토대로 복된 아버지상을 찾아서 일러준다. 잘못 살았던 가정생활을 점검하면서 반성의 기회로 삼고 좋은 가정을 이루려면 아버지가 새롭게 변해야 함을 깨닫고 많은 아버지들이 자기의 삶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얻는다.

그런데 이 아버지학교가 언제부터인가 다민족 공동체의 아버지학교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미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아버지학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정착되어 있고 러시아 및 유럽의 나라에서도 아버지학교를 열고 있다. 아버지학교를 접하는 곳마다 아버지들의 가정에서의 영향력 등이 매우 발전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민족들에게서 아버지학교가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렇게 세상의 아버지들이 참된 성경적 아버지상으로 거듭나

고 있다. 다민족 아버지학교가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가정의 올바른 아버지상을 정립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앞으로도 다민족을 향한 아버지학교의 부흥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하는 아버지들이 서로 같이 모여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 도전하는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섬기는 이들이 내년을 계획하며 연말 모임을 갖는다. 일시는 2017년 12월 21일(목) 오전 11시, 장소는 새영교회(정종섭 목사 시무, 14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이다.

아버지학교의 비전은 작게는 가정 모범이고 더 나아가 건강한 교회의 모범이 되고 아버지의 모델을 확립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세계 선교의 꿈을 갖는다. 아직 아버지학교를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들과 예비 아버지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의 교수들과 한인 졸업생들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제62회 졸업식

다양한 학위의 한국어 과정 졸업생 배출

미주리 주에 소재한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제62회 졸업식이 12월 8일 거행됐다. 전체 129명의 졸업생 가운데 한국어 과정을 통해 학위를 받은 학생은 총 17명(석사 10명, 박사 7명)이었다.

미드웨스턴 한국부는 성경사역학 철학 박사(Ph.D.), 교육목회학 박사(D.Ed.Min.), 목회학 박사(D.Min.), 목회학 석사(M.Div.), 신학연구 석사(MTS), 가족상담학 석사(MACO) 등 다양한 학위 과정을 한국어로 개설해 전 세계 한인들을 섬기고 있다.

이번 졸업식에는 목회학 박사 4명, 교육목회학 박사 3명, 목회학 석사 3명, 신학연구 석사 3명, 가족상

담학 석사 4명을 배출했다.

특히 이번 졸업식에서 안지영 목사(전 성경번역선교회 선교사; 달라스 나눔교회)는 '신앙 공동체 성숙을 위한 소그룹 성경공부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제출했는데, 보통 12주 정도하는 프로젝트를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년 동안 진행하며 430쪽에 달하는 실제적인 목회학 박사 논문을 제출하여 주변을 놀라게 하였다.

남침례회(SBC) 산하 신학교 중 하나인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은 'For the Church'(교회를 위해)라는 기치 아래, 성경적 교육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배출해 내고 있다. 규모 면에서 미국 내 5대 신학대학원에 속하며 북미주 주류 신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와 미국 내 중북부 지역 종합대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HLC(Higher Learning Commission)의 인가를 갖추고 있다. 한국부에는 현재 550명이 재학 중으로 한인인 대상으로 하는 신학교 가운데 북미 최대이며 탁월한 교수진과 최고의 질적 강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www.mbts.edu) 또는 최새롬 사모(ks@mbts.edu, 816-414-3754)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위탁가정 아이들에게 따뜻한 성탄 카드를”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는 지난 12월 6일 오픈뱅크 본사를 방문해 오픈뱅크 직원들과 '사랑의 성탄 카드'를 만들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LA카운티 아동보호국과 함께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오픈뱅크 직원들과 만든 성탄 카드는 오는 12월 15일 웨스트 코비나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위탁가정 아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받게 될 성탄 카드 안에는 기프트 카드를 동봉했다. 올해 한인가정상담소는 한인사회 후원을 받아 LA카운티 아동보호국에서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 아이들 100명에게 전달할 기프트 카드와 장난감 등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



오픈뱅크 직원들과 한인가정상담소가 함께 위탁가정 아이를 위한 성탄 카드를 만들고 있다.

오픈뱅크 크리스틴 오 전무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같이 모일 수 있었던 까닭에 많은 직원들이 아이들에게 전달할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드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카니 정 조 소장은 “오픈뱅크는

한인가정상담소가 2014년 처음 시작한 동지찾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후원금뿐 아니라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할 때 직원들과 임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보내주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섬기는 이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기쁘다 구주 오셨네!
축성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9:45
- 3부예배 오전 11:45
-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810-3455 / F. (626) 964-5559

남은 자에 의한 회복의 섭리

룻기 1:1-2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곤란하게 된 것은 죄 값의 징계였는데 회개하도록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딸론 기론 두 아들을 데리고 재산을 정리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여 저주받은 땅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재촉했던 것입니다.

1. 베들레헴을 떠나는 불행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으로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실 곳으로 예고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에서는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 하시며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곧 오늘날의 교회와 같아서 강단으로부터 목자를 통하여 생명의 떡, 진리의 말씀이 무진장 공급됨으로 그 교회에 속한 양떼가 배불리 먹고 영원하고 신령한 하늘소망을 가꾸게 하는 곳입니다.

양떼가 생명의 떡집을 떠나 저주받은 이역 땅 모압에 가서 안주하며 웰빙(well-being)하겠다고 자리를 잡은 것은 신앙회복을 위해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반역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모압으로 가져간 그 모든 재산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더 잘 섬기라는 목적으로 주신 것인데 죄악의 도성에 가서 탕진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배은망덕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엘리멜렉은 죽었고 그 아내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남았던 것입니다.

왜 가장인 엘리멜렉이 서둘러 죽어야 했는가를 남은 가족들이 바로 깨달아서 서둘러 생명의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었다면 두 아들마저 객사하는 불행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다가오는 죽음을 깨닫지 못한 불찰로 두 아들마저 죽고 결국 나오미와 모압 여인인 청상과부 두 명, 즉 세 과부만 남았던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남편도 두 아들도 객지에 물어버린 처참한 신세가 되어 비통하기 이를 데 없는 잠담하고 불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2. 베들레헴 회복의 복음을 듣고 귀항을 서두르는 나오미

나오미가 모압생활 10년 동안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청상과부가 된 모압

여인인 두 자부와 함께 지내는 세월은 탄식과 절망입니다. 너무나 처절하고 참담한 신세를 슬퍼하며 통곡하는 세월 속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셨다는 복음을 듣게 되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뜻을 정한 것은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객지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된 원인임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 후반 말미에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하나님의 떡집)을 향하여 돌아가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 각기 친절으로 돌아가 개가하여 인생을 새 출발하도록 강권했을 때 큰며느리 오르바는 자별인사 하고 돌아갔으나 작은 며느리 룻은 극구 사양하며 끝까지 시어머니와 동행동숙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며 죽는 일 외에는 결코 어머니에게서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나오미는 부득이 룻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았거나 성공한 나오미가 아닌데도 룻이 그토록 시모님을 붙좃아 따른 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룻도 하나님의 매를 피하여 도망가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과 매를 맞은 후에도 중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품 속으로 돌아가는 신도는 반드시 용납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되고 믿어졌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3. 회복받기 위한 회개의 진실성

회개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마침내 베들레헴 성문에 들어서는 나오미에게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고 떠들썩했을 때 나오미(기쁘고 즐거움)가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쓰고 괴롭다)라고 불러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을이라고 했으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은 자기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므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피하고 모압 땅에 돈 많이 가지고 가서 불신세계와 어울려 잘 살아 보겠다는 웰빙의 꿈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증되며 하나님을 능멸한 죄, 배은망덕한 죄악의 행보

였음을 뼈가 저미도록 후회하며 통탄하는 아주 솔직하고 진실된 깊이 있는 회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생명의 떡집 진리의 교회를 쉽게 떠나 지옥으로 쓸어가는 죄악의 홍수에 휩쓸리거나, 주께서 맺어주신 목양지간(牧羊之間)의 인연마저 헌신짝 버리듯 믿음 없이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책임목회의 사명을 위해 몸부림쳐온 목자의 가슴에 또 하나의 못을 박는 아픔보다, 떠난 양의 당하게 될 불행과 멸망을 우려하며 가슴 조여야 하는 목자의 안타까움을 어찌 해야 할까요?

4. 룻을 통한 나오미의 회복섭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BC1110년대)에도 이방 여인 모압 태생의 룻을 택하시어 나오미의 자부가 되게 하고 시부와 시숙 남편까지 남자라곤 다 죽어버린 불행한 가정,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가정의 시모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길에 편승하여 룻도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철저히 믿는다는 고백은 타락한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나 고백이 아니라 회개하는 나오미에게 회복을 위한 자료가 되게 할 룻으로 또한 이방구원의 의지를 밝히시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룻을 택하셨고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였고 오벳을 낳게 하여 다윗 왕조의 계보에 등재될 뿐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공히 등재되는 영광의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시모였으나 룻의 친모와 같은 관계와 역할로 룻이 보아스에게 낳은 오벳을 나오미가 품에 안고 양육하

여 “이르되, 찬송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무를 자가 없게 아니 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자라다 나오미가 아이를 취하여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4:13~17)

진리의 떡 생명의 떡집인 교회를 떠나 저주받은 모압과 같은 죄악세상에서 어리석은 기대와 허황된 꿈에 도취되어 세월 허송하며 실패와 멸망을 재촉하지 말고 서둘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정해주신 목자와 교회를 찾아 돌아가십시오! 거기엔 주님께서 피 묻은 손의 두 팔을 벌리고 그대를 뜨겁게 환영하시며 용서하시고 다시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의 기쁨과 은혜보장의 생명길로 회복시켜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과 같이 1장 3절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에 딸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남편과 두 아들 뒤에 남았더라, 죽고 남았더라가 되풀이 되는 과정에서 한 가정이 씨가 말라 몰락하는 진행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떡집을 떠난 삶으로 인해, 없어지거나 죽어가기 시작하거나 서둘러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모든 것으로 회복 받으라는 징계적 섭리인줄 깨달아 물질이나 명예나 목숨이 더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돌아와서 온전히 회복 받으십시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리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www.marhlaw.com

- 辯護** 변호: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 實力** 실력: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 精誠** 정성: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 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 責任** 책임: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말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언제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 信賴**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진본이 없는 것 같 일고 있습니다.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이민법

낯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본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야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눅 2:14)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ier



얼바인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 9:15
고등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권혁빈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이춘준 담임목사

구세군나성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어린이예배 주일 오전 11:2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금요기도회 금 저녁 7:3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480-0714

이주철 담임사관

토렌스선한목자교회

1부 한어예배 주일 8:00AM
2부 한어예배 주일 11:00AM
3부 EM 주일 9:00AM
금요 찬양예배 금요일 7:30PM
새벽 기도회 월~토 6:00AM



2531 West 237th Street, Torrance, CA 90505
T.(310)326-2001/310-989-4381

김현수 담임목사

L.A 기쁨의 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주일예배 2부 오전 10시 30분
주일학교 오전 10시 30분
청소년예배 오전 10시 30분
English Service 오후 12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7시 30분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 (월~토)



www.thejoylife.org

3938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351-9975 (Fax결음) e-mail: cometojx@gmail.com

이희문 담임목사

한소망교회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2869 W. Pico Blvd., LA, CA 90006
T. (213) 219-7500

지명환 담임목사

주님의교회

주일예배 정오 1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어린이 & Youth 정오 12:00
금요일 오후 7:30
새벽 기도 5:30(화~금) 오전 6:30(토)



301 W Avenida De Las Flores Thousand Oaks, CA 91360
T.(805)208-8242

오정택 담임목사

사우스베이 목사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눅 2:14)



회장 안병국 목사
(가나교회)

남가주기쁨의교회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유치부주일예배 오전 11:00
아동주일예배 오전 11:00
학생부주일예배 오전 11:00
대학청년부주일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45, 토 오전 6:20



25500 S. Vermont Ave, Harvor City., CA 90710
T:(310)326-0300

이형영 담임목사

CMF선교회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김철민 장로

시카고벤엘장로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고등부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저녁 8:00
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



399 N. Quentin Rd, Palatine, IL 60067
T. (773)545-2222

최병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주일 예배 11:30 AM
주일 학교 11:00 AM
수요 예배 7:00 PM



3735 Hughes ave, Los Angeles, CA 90034
T. (310) 836-8342, (213)663-3301

김명규 담임목사

충만교회

Fullness of Christ Evangelical Church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25 (월~금)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18325 Horst Ave., Artesia, CA 90701
T:(714)262-1428

김기동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이승준 담임목사

United Christian Seminary UCS 대학교 및 대학원

SEVIS I-20 재제 발행
수시입학 수시출입가능

목사안수제도
목사안수는 UCS 대학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미국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실시하는 교단법에 의거 목사교사를 거쳐 미국예수교장로회 교단으로 부터 목사안수를 받으실수있습니다. 여목 제도 있습니다.



최아브라함 총장

상담문의 : (213)388-5992, 한국어(213)598-3146, Fax(213)388-5973
E-mail상담 : ucsoniversity@gmail.com, ucsoniversity@yahoo.com 주소 : 3130 Wilshire Blvd, #210, LA, CA 90010

주비전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이상훈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후 12:4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 90274
T.(310)715-9902

윤 목 담임목사

옥스나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주일 1부 예배 주일 오전 8시 45분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금요 찬양 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새벽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269 Walnut Dr, Oxnard, CA 93036
TEL (805) 485-0100

남재현 담임목사

뮤리ета 한인장로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영어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한글학교 오전 10:00~오후 1:00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김성수 담임목사

셔만옥스 한인교회

주일 예배 : 매 주일 오후 12:30 분
예배 장소 : The Walter Staves Chapel
(Congregational Church of Chimes 내에 독립건물)



14115 Magnolia Blvd., Sherman Oaks, CA 91423
T.(818)825-8816

최사무엘 담임목사

샌퍼난도 벨리교역자협의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눅 2:14)



회장 서오석 목사

고백하는교회

주일예배 오전 11시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7시 30분
어린이예배, 영어학생부예배 주일 오전 11시




16200 Chatsworth St., Granada Hills, CA 91344
T.(818) 363-6007

하모세 담임목사

소망장로교회

주일예배 1부 09:00 AM
주일예배 2부 11:00 AM
주일예배 3부 01:30 PM
수요예배 07:30 PM
새벽예배(월~금)05:30 AM
기도모임(주일) 10:00 AM
기도모임(금) 09:00 PM ~10:30 PM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505 LA CA 90057
Tel, (213)487-2481

성요섭 담임목사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남가주새언약교회

New Covenant Community Church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전 11:00
수요큐티모임 : 저녁 7:00
금요성령집회 : 저녁 8: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금)
새벽기도회 : 토요일 오전 9:3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el. (213)263-9509

강양규 담임목사



2017년 타코마 기독교 연합회 성탄 축하 연합예배

타코마 성탄 축하 연합예배 성황

타코마 기독교 연합회가 주최하고, 타코마 목사회가 후원한 2017년 타코마 기독교 연합회 성탄 축하 연합예배가 지난 10일 타코마 제일침례교회(담임 최성은 목사)에서 은혜 가운데 마쳤다.

이날 예배는 타코마 기독교 연합회 정회원 총 27개 교회들의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했다.

특별히 회중 전체가 부른 "기쁘다 구주 오셨네", "천사들의 노래"는 듣는 이나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감동이 됐다. 이어진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어린이들의 "God with us" 뮤지컬과 타코마 삼일교회의 "성탄 메들리", 타코마 새생명교회의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타코마 연합장로교회의 "오 거룩한 밤",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의 "천사의 캐롤" 그리고 타코마 기독교 연합회 각 교회 지휘자들의

"별의 캐롤, Ding Dong Merrily on High"와 함께 타코마 목사회는 "하늘의 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날 예배는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의 "예수 거룩한 이름" 그리고 회중 전체가 합창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한편, 성탄 축하 연합 예배는 권상길 목사(삼일교회)의 인도로 각교회 목사(타코마 연합장로교회)의 설교, 최성은 목사(타코마 제일침례교회)의 축도로 이어졌다. 권상길 목사는 "아기 예수의 탄생 때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영광이 오늘밤 타코마 지역 한인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으로 모여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는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라며 "구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자"고 설교했다.

브라이언 김 기자



밀알 송년의 밤 행사 중 엘로힘 중창단의 특송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과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

애틀랜타밀알선교단(단장 최재휴 목사) '2017 밀알 가족 송년예배'가 10일(주일) 오후 5시, 선교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와 모임은 한 해를 돌아보며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를 돌리고, 다가오는 한 해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최대근 집사의 찬양인도로 시작한 예배는 김태인 이사의 기도, 이희양 이사장의 환영인사 그리고 엘로힘 중창단과 밀알 어머니들의 특별 찬양으로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다.

말씀을 전한 영광장로교회 홍창우 목사는 "세상이 가진 가치의 크기와 하나님께서 가진 가치의 크기는 다르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 같이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큰 자라고 인정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가치를 이야기 한다. 즉 누군가 도와주고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어린 아이'를 큰 자라고 하는 것이다"라며,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 힘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로서 더 잘해 주고 싶고 최고로 대하고 싶고 그 아이 생명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자녀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고 간절히 큰 자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넣어주자. 우리 자녀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 그 영혼은 기뻐 춤추고 행복할 것이다"라고 권면했다.

최재휴 목사는 "한 해 동안 밀알 사역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밀알 선교를 위해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윤수영 기자



퀸즈 YWCA가 2일 New Bank의 후원으로 농산물 나눔행사를 가졌다.

퀸즈 YWCA 농산물 나눔행사

연말을 맞아 퀸즈 YWCA가 2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퀸즈 YWCA 강당에서 농산물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New Bank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농산물 나눔 행사에서는 약 350 가구에 선착

순으로 신선한 야채와 과일 등을 무료로 나눴다. 또 이날 행사를 위해 Newcomers High School, Korean American Church of Love, Grace Church, Disciplines New York 등에서 자원 봉사자들이 참여했다.

교회 소식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침중학교 / 토요일-17가와버몬트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培育和 이끄는 사목목회, 이민가정치회, 선교영양순환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137) /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2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한국교회 토 오전 10:00-오후 1:00
한어장년부 오후 1:30 오영미어회 오전 11:00-오후 6:0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교회, 영적 리더를 배출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장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민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오전 5:30(월-금)
주일 2부 오전 11:00 세안만민교회 토요일 오전 9:30
수요큐어모임: 저녁 7:00 교회학교(Child Youth): 매주 주일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저녁 8:00

강양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34-1083 www.new2011.org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중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일요일예배) (쇼배)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323) 766-9922 / www.la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시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부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람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애제가 살아있는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성령강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장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조승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일학교회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무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iet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iet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6:30(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욱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 성경공부 오후 7:00(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교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모이는 교회, 헤어지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저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중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6:00 성기대연회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중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6:00 성기대연회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경대일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경대일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후 12:45
주말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케나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전 12:30
유년부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교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818) 845-1683/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9:3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베리채플 Valley Chapel LA에베레투스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9514 Firland St., Northridge, CA 91326 348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818)363-5887 Tel: (213) 232-3163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c.office1@gmail.com

O.C./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이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금요찬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9:30, 11:30
한어청년부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ingivingchurch.com



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기총 제공

한기총, 모든 교단 행정보류 해제 법 따라 회원권 부여 포항 지진 피해 돕기 나설 예정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8일 오전 11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28-6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회원정명 결과 26명 참석, 18명 위임으로 성수됐고, 개회선언, 전 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한기총은 이날 제29회 정기총회를 2018년 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또 포항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 및 방문의 건으로 대표회장에게 위임해 회원교단 및 단체에 모금을 요청하고, 오는 14일 오전 8시에 방문하기로 했다. 제2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개최 기원 연합예배 및 후원의 건은 지난 11월 29일 제1회 성공기원에배를 드렸음을 보고하고, 각 교단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역사적·시대

적 공감대를 다음 세대와 함께 형성하여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진행된 종교개혁 500주년 '한국교회 문예대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참가 분야는 그림, 글짓기, 시, 수필, 감상문 등이다. 기타 안건으로 한기총에 행정보류된 모든 교단의 행정보류를 해제하고, 해당 교단의 복귀시 법과 절차에 따라 회원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대표회장 임후보자의 나이, 경력 등의 자격에 대해 정관운영 세칙개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실행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회의 전 드러진 예배에서는 이병순 목사(공동회장)가 기도했고,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대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회의는 엄신형 목사(경증대표회장)의 폐회기도로 마무리됐다.

이대웅 기자

장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연회실



신임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왼쪽)가 직전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기연 신임 대표·상임회장에 이동석·권태진 목사 제7회 총회 열고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추대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제7회 총회가 6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려 이동석 목사(예성 증경총회장)와 권태진 목사(예장 합심 증경총회장)를 각각 신임 대표회장과 상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 대의원들은 단독 임후보한 이동석·권태진 목사를 별도의 투표 없이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추대했다. 이동석 신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연합"이 이번 회기부터 '한국기독교연합'로 명칭을 바꾼 것은 단순히 이름 한 글자 바꾼 것이 아니라 지난 6회기까지의 공과를 되돌아 보면서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연합운동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이요 선언"이라며 "본회 소속 39개 교단 10개 단체들과 함께 한기연이 한국교회를 명실상부 대표하는 가장 건전하고 모범적인 교회연합기관으로 성장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권태진 신임 상임회장도 "이제 새로 명칭을 바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 출발하는 한기연은 그동안 한기연이 추구해 온 정체성과 정도를 준수하면서 한국교회가 하나되는 데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며 "신임 대표회장님과 새로 조직되는 임원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이 밖에 총대들은 그 동안 사무총장 대행을 맡아온 최귀수 목사를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 아울러 지난해 사업과 재정 등을 보고 받은 뒤 새 회기 사업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이날 채택한 제7회 총회 선언문을 통해 △교회 일치와 연합운동 매진 △작은 자들을 향한 섬김 △동성애·이단사이버·반기독교 사조 배격 △제2의 종교개혁의 각오로 구습 타파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설교한 직전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으나 끝내 연합을 이루지 못한 것의 깊이 사죄한다"며 총대들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 정 목사는 "어제(5일) 한기총이 설립되는 걸 지켜보면서 또 한 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교회 연합사업이 이렇게 가도 될 것인가, 하는 염려가 앞선다"며 "그러나 한기연이 그 본연의 사명의 잘 지켜, 보수교회들을 이끈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도 밝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베트남에서 전도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페이스북

베트남에서 열린 대규모 전도집회 무려 1만 명 참석 공산주의 정부가 기독교에 마음 열기 시작

최근 베트남에서 이틀 간 전도집회를 가진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베트남 공산주의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래함 목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노이에서 막 집회를 마무리했다. 베트남 북부에서 이러한 집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이날 밤 수 많은 이들이 스포츠 경기장을 가득 채웠고, 밖에 있는 이들은 대형 스크린으로 행사를 지켜봤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400대의 버스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이들을 실어 날랐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반응해 너무나 기뻐다. 이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AP 통신은 “약 1만 명의 사람들이 집회 장소를 가득 채웠으며, 이는 베트남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규모다. 게다가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에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래함 목사는 “베트남은 지난 30년 간 정말 많이 변했다”면서 “교회에 대한 공산주의 정부의 태도가 변화되고 있다. 난 계속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믿는다. 베트남 기독교인들은 더 많은 종교의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서방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점차 종교의 자유를 잃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 자유를 헌신적으로 지지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는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래함 목사는 “베트남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적으로 보지 않을 바란다. 기독교인들은 베트남에서 가장 최고의 시민들 중 일부이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증거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사가 베트남 교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 베트남 정부에도 도움이 되어서 이번 주가 지나면 우리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오른쪽)과 이라크 에르빌의 바사르 마티 와르다 대주교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트위터

마이크 펜스 美 부통령 “이라크 기독교인들 직접 돕겠다”

다음달 중동 순방에 나서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4일 이라크 에르빌의 바사르 마티 와르다 대주교를 만났다.

두 사람은 이라크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소수 종교인들의 필요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나눴다.

이와 관련, 가톨릭 뉴스 통신은 “와르다 대주교는 이라크 국민들이 직면한 상황들을 전달하고, 니네베에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와르다 대주교는 “미국이 IS(이슬람교

가)의 대량학살로 인해 고통받던 이라크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약속해 준 것에 대해 국민들을 대신해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라크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과 소수 종교인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일과 관련해 중요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앞서 펜스 대통령은 UN을 거치지 않고, 사면초가에 빠진 이라크 기독교인들에게 직접적인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혜진 기자

미국에서 가장 최악된 도시 2위는 올랜도... 1위는?

웹사이트 월릿허브(WalletHub)가 분노, 정욕, 탐욕 지수 등을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가 미국에서 가장 최악된 도시로 선정됐다.

최근 발표된 보도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가 1위를 차지했고, 플로리다 주 올랜도,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플로리다 주 세인트루이스, 네바다 주 헨더슨,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루이지애나 주 베턴 루지, 플로리다 주 탐파,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가 그 뒤를 이었다.

뉴욕은 47위였고, 텍사스 주 휴스턴은 40위, 워싱턴DC는 43위였다.

월릿허브는 “라스베이거스만 미국에서 가장 최악된 곳이 아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다.

이어 “술에 중독된 밀워키부터 쾌락에 빠진 뉴올리언즈까지 미국은 악행하는 이들로 가득하다. 어떤 곳도 순수한 곳은 없다. 우리는 모두 마귀를 갖고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에 오후 8:00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Nasung Church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562) 690-7979 F.(562) 690-0038
www.nasungchurch.net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학교 11: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주일 3부예배영양 1:30 PM 토요일 6:30 AM
금요찬양예배 7:30 PM

이원준 담임목사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생가지 예배 : 매일 4부주일 오후 5:30분
대학생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베헤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 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알본야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 (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 (토)
4부예배 오후 1:30 (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일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C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아)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Orange Cannan Presbyterian Church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6:30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림반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5:30 (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 (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성령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아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937 W. Chapman Ave. #105, Orange, CA 92868
T.(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la.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제24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2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7년 12월 16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가주치과 대표 오득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솔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라이온스클럽, 올림픽 칼국수, M.G.M

후원 기독교일보, FH미션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부모사랑

카탈리나 섬 / 엔세나다(멕시코)
바하 멕시코 크루즈 Carnival

5월 \$290 - 모든 세금 포함 (항만세/부두세/정부세 등)
- 기항지 선택관광 및 일체 팀 별도

DATE	DAY	PORT	ARRIVE	DEPART
1/22	월	롱비치 (LA)		5:30 PM
1/23	화	카타리나 섬	7:30 AM	4:30 PM
1/24	수	엔세나다 (멕시코)	8:00 AM	6:00 PM
1/25	목	전일 항해		
1/26	금	롱비치 (LA)	7:00 AM	

푸른투어 FRT Tour & Consulting
www.prttour.com
213. 739. 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엡 1:23)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교회가 병들지만 않으면, 하늘의 영광을 나타낼 공동체이니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는 것은 천국에 이르는 현관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 불립니다.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communion of the saints)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라 함은 개인주의적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사랑하고 치유하는 확대된 가정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감사제목 중의 하나는 아마도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성도들에게 교제의 공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육의 공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사랑의 섬김과 봉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교제의 공동체일 뿐 아니라 또한 공영체(共營體, commonwealth)임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공동체라 함은 다분히 자

로 공영체로서의 공동선과 공동목표를 이루도록 허락하십니다. 교회라는 공영체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포함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운영을 하여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상호책임의 요소가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교회가 공영체라고 할 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공영체 교회는 “공동운명체”입니다. 공영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출생부터 종말에까지 주님께 생사가 걸린 공동운명체입니다. 둘째로는 공영체 교회는 “공동운명체”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공영체로서 교회는 목회자나 성도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성도에게 공동체를 위임하셨기에 온 성도들은 함께 책임을 지고 운영한다는 의미에서의 공영체입니다. 셋째로 공영체 교회는 “공공이익체”입니다. 지역교회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겠지만, 공영체인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공공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공영체 교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교회가 공영체라고 할 때,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와 평신도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교회에서 지도력을 함께 발휘함

부모가 부끄러울 때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고등학교 다니는 한인 2세들이 모여서 1세 부모에 대해 답답하고 부끄러웠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부모들이 자기네들은 영어를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는 한국어 배우라고 강요하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고 위선적으로 보이니까지 한다 했습니다.

또한 타인종에 대한 문화적 우월감인지, 타인종과는 교류도 하지 않고, 사회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너무 엄하게 대하는 부모님들과 명문대를 꼭 가야 한다며 공부에 스트레스를 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어른을 존경해야 한다며 강요된 인사와 압력 행사 등이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1세 부모님들을 더 동정하게 됩니다. 영어를 열심히 배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말을 가르치는 이유는 해외에 나오면 애국자가 되고, 한국말을 하는 동포들과의 동질감으로 이민 초기의 어려움을 견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재산이 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무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공부하는 것인지 모르고, 부모님이 “너 같이 말 잘하는 애가 돈 들어가며 그 공부하려 왜 대학 가냐? 말 안 하고 칼질(수술)하면서 돈 버는 의사해라” 했다고 해서 결국 의사 공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같이 배를 쥐고 웃었던 기억도 납니다.

이제 저는 아이 셋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으로 살고 있고, 늦둥이 하나 고등학생이 있지만, 저 역시 자녀들에게는 부끄러운 부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대학도 나오고,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저도 여지없이 우리 애들이 한국말 잘 했으면 좋겠고, 명문대 고집은 안 하지만, 위 세 아이가 다 주름을 갖는데, 만약 막내라도 아이비(Ivy)를 간다면 지금 생각에는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부모가 속물이라도 자녀를 위해 물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기에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도를 가르치고, 교회 생활의 기쁨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우리 애들은 결코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찾을 수 없는 설령탕 집



김성민 목사
펠리세이드교회

거의 7년 만에 갑자기 워싱턴 주를 가야 할 일이 생겼다. 3시간여 운전 끝에 점심을 먹어야 할 일이 생겨서 이전에 자주 갔던 설령탕 집으로 갔다. 그런데 겨우 찾아간 그 빌딩에 간판은 있으나 음식점은 없었다. 마침 파킹장에서 있던 한 남성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더 이상을 그 음식점이 없다고 한다. 작년 가을에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서 허리를 다쳐 음식점 문을 닫았다고 한다. 그러면 길 건너편에 있던 칼국수 집은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물어 보니 그 집은 운영이 안 되서 몇 년 전에 문을 닫았다고 한다. 그러면 저 앞에 있던 빵 집은 어디에 갔는가 물었더니 그 집도 문을 닫았다고 한다. 그 주위에 한국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좋아졌고 또한 상가도 많아졌지만 내가 찾던 그 음식점은 없었던 것이다.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른다.

교회를 생각해 보았다. 교회 주변에 평생을 살 수도 있지만 멀리 이사를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믿는 성도라면 이전에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며 은혜 받았던 교회를 찾아간다. 어떻게 부흥하고 있을지 또한 과거 본인이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싶어서일 것이다. 물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찾던 그 교회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 생각

해 본다. 더욱 부흥해서 다른 곳을 옮겼다고 한다면 모를까 혹시 어려움을 당해서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플까? 교회는 구약의 도피성과 같이 멀리에서도 보이고, 오는 길이 굽지 않으며, 언제 어느 쪽에서나 달려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없어졌다고 한다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자 할 때나 아니면 방향 끝에 제 길로 돌아오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로 찾아 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장 28-30절)라고 말씀하신다. 달려오라는 말씀이다.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

하신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팔의 역할을 하기 원하시고 언제고 세상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생명에 대하여 답을 구할 때에 알려주고 먹여주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이 행복하며 그 모습을 세상에 널리 알리시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달려 올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런데 만일 세상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교회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떤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문을 닫아버린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으로 잘못 알려져서 교회의 직임을 감당할 수 없는 교회, 건물이 있기는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달려가지 않는 교회, 스스로 문을 닫고 밖에서 들어 올 수 없도록 철저히 닫아 놓은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로서의 그 자리에서 있을 이유가 과연 있겠는가? 우리의 교회가 세상이 달려올 수 없고 또한 달려오는 자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건강하고 행복해서 우리 스스로는 물론이고 세상이 부러워 할, 멀리서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때에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 달려와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공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를 322호)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마틴 로이드존스처럼 성경을 설교할 수만 있다면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로이드존스 설교의 정수는?

로이드존스, 그 이름만으로 충분한 사람 아닐까? 청교도를 좋아하는 독자라면, 아마 로이드존스의 이름은 이미 전설임을 인정할 것이다.

로이드존스를 좋아하고 존경한다. 그는 특이하면서도 강력한 흡입력을 가진 설교자다. 이미 1981년 고인이 됐지만, 그의 설교는 여전히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다.

이 책 저자인 스티븐 로슨, 그 또한 로이드존스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의 설교에 미친 사람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그는 현재 R. C. 스프로울이 설립한 리고니아 미니스트리 이사 겸 교수로 재직 중이다.



마틴 로이드존스의 설교를 만나다
스티븐 로슨 | 황을호 역
생명의말씀사 | 215쪽

는 비중은 의미심장하다. 하지만 로이드존스와 성경의 관계는 다른 책에서 다루고 있으니, 본 서평에서 굳이 강조할 이유는 없을 듯하다.

그러나 다른 두 주제는 약간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하나는 성경, 즉 연구에 관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교리이다. 로이드존스는 교리에 탁월한 설교자이다. 저자는 7-8장에서 교리에 대한 설교를 다룬다. 3장부터 6장까지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듯하지만, 중심은 성경과 성경 연구이다. 마지막 성경은 9장에서 잠깐 언급한다.

로이드존스는 축망받는 의사였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박사'였고, 이 호칭은 평생 따라붙는다. 사색을 좋아하고 독서를 유난히 좋아했던 어린 시절은 그의 목회 생활에 큰 도움을 준다. 18살 때 형을 잃는다. 22세 때 다시 아버지를 먼저 보낸다. 그는 너무 젊은 나이에 큰 상실을 경험했고 삶을 실존적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1926년 6월, 2년 동안 고민하던 설교자의 사명에 반응한다. 설교하기 위해 의사직을 내려놓은 것이다. 런던의 신문들은 로이드존스를 조롱하고 황당해 한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았고, 설교자의 길로 들어선다. 그는 자유주의 사상에 물든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기로 한다. 그는 독서를 통해 청교도 신앙을 배웠고, 전통 성경관에 입각한 설교를 시작한다. 그렇게 부패와 타락으로 만연한 서부 웨일스는 로이드존스의 설교로 점점 변화된다. 텅 빈 교회당은 시간이 지나면서 앓을 자리가 사라져 갔다. 11년 동안 샌필즈에서 설교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한다.

다시 1938년 9월, 로이드존스는 런던에 입성한다. 탁월한 성경 교사였던 캠퐸 물간이 로이드존스를 동사목사로 불렀다. 잠깐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웨스트민스터교회 사역은 사임할 때까지 무려 25년간 지속됐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도시 밖으로 교인들이 빠져 나갔지만, 곧 교회당은 가득 찼다. 로이드존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다.

로이드존스 설교의 탁월함은 무엇보다 성경에 대한 깊은 사랑에 있다. 로이드존스는 '한 책이나 장 전체를 오랫동안 길게 시리즈로 진행하는 훈련된 설교 방식(67쪽)'을 사용한다. 로이드존스를 존경하는 독자라면 이 설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이다.

에베소서 강해와 로마서 강해로 대표되는 로이드존스의 연속 설교 방식은 감히 따라할 수 없을 만큼 길다. 현재 전 14권으로 번역된 로마서 강해집은 1955년에서 1968년까지 웨스트민스터교회에서 설교했던 것이다. 무려 14년에 가까운 시간을 로마서 강해에 집중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는, 집요한 성경 연구와 열정적인 설교 방식 때문이었다.

로이드존스에게 성경은 말 그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다고 믿었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신적 산물(68쪽)'이란 한 문장 속에, 그의 성경관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축자적 영감을 믿었고, 유기적 영감을 지지했다. 현대 교회의 문제는 '성경이 완전 영감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과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역설하고 강조하는 것에서 교회가 자발적으로 떠난 데 있다(70쪽)'고 믿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교회다워지려면 바른 성경관으로 돌아가야 하고, 바르게 설교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것은 다시 성경을 단지 문학적 의미나 역사서로 한정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그것들은 포함돼 있을 뿐,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점이다. 즉 이 시대 속에서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연구되고, 설교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설교자가 권위 있게 설교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책은 200쪽 남짓한 두껍지 않은 책이다. 그럼에도 로이드존스의 설교에 대한 명료함이 돋보인다. 로이드존스를 처음 접하는 독자나 로이드존스의 설교를 연구하고 싶은 연구자에게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정현욱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맹목적인 고래와의 사투 초현실적 상상력 구사한 해양소설

송광택 목사의 인문 고전 읽기



모비 딕
H. 멜빌 | 이가형 역
동서문화사
738쪽

을 설명하는가 하면, 극적인 독백이나 '내가 말하는 1인칭 형식, 3인칭에 의한 기술 등이 뒤섞여, 그것을 전달하는 문장은 힘차며 때로는 해학까지 곁들여 박력이 넘친다. 그와 같은 사실과 허구가 뒤섞이는 속에서 백경의 리얼리티가 신비스러울 만큼 독자를 이끄는 것은 참으로 장관이며, 전체가 '바다의 서사시'라고 할 만하다.

〈모비 딕〉 창작과정 연구에 의하면, 이 소설에는 멜빌이 작품을 쓴 당시 정신적 방향의 깊이가 반영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작품 전체가 갖는 신비적 의미, 소위 '상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비평사상 커다란 문제가 되어있다. 한 예로 모비 딕을 원죄로 보는 사람, 에이헤브와 백경과의 싸움을 선과 악 또는 인간악과 자연악으로 보는 사람, 백경의 추적을 백인들의 저주스런 숙명으로 보고, 거기서 정복욕에 사로잡힌 서구 문명의 비극을 보려고 하는 사람 등 가지각색이다. 그러나 모비 딕을 우주적인 근원악, 에이헤브를 유한한 육체로서 그것에 맞선 불굴의 인간정신의 표상으로 보고 백경이 된 바다를 인생 그 자체로 보는 입장이 우선 무난하다 하겠다.

이 소설은 발표 당시 매우 평이나 빠져 기교를 가장한 글로 받아들여졌을 뿐 아니라, 멜빌 자신도 일생 동안 불우하게 보냈다. 그러나 1920년 그의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멜빌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졌고,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재차 멜빌에 대한 연구열이 고조됨에 따라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진기나 정확한 텍스트의 편집·출판도 행하여졌다.

이후 오늘날 세계문학에 있어 멜빌의 이름이 단테나 셰익스피어, 도스토예프스키에 비견되는 것도 〈모비 딕〉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작품은 웅장한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한 마디로 〈모비 딕〉은 19세기 미국의 작가 멜빌이 그의 체험과 기록을 바탕으로, 초현실적인 상상력을 구사해 쓴 해양소설이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도운동추진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링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샵
고려대 안암병원내 샵
입점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로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알카리성

산성	중성	알카리성
3.5	6.0	7.0
8.5	9.0	9.5
셀라케어 10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빠른 지급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명품 과일 판매
 Thanksgiving 선물용

아주 맛있는 과일 농장에서 직접 받아 판매합니다. 한인타운내 무료 딜리버리 가능

T.(213)400-4149 **Cash Only**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무료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인하소반주 각종 김치

626-731-7864 (\$40이상 주문시) **무료배달**

갈비만두, 매운갈비만두(40개 \$20)
 김치교자, 부추교자(50개 \$20) 왕만두, 팔짚빵(10개 \$10)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목, 발목 질환}

✓ 발가락

✓ 마디관절

*지독한 코골이 증상

•치질(항문하혈, 통증)
 •독소제거, 혈관 청소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불임증 (자궁축, 하혈)
 •TMJ 턱관절 장애

•우울증
 •관절염, 다리 쥐 오름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만성두통, 요통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2018 NEW WORD
 말씀카드

전면디자인 5가지와 한영으로 된 성구 350구절의 예쁜 말씀카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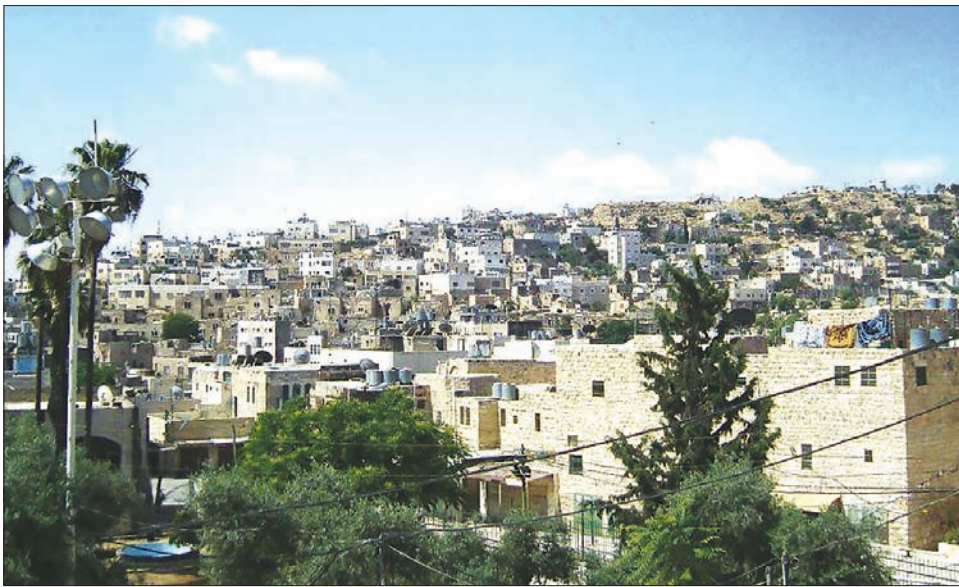
EVENT 20% OFF
 12월 6일 까지 주문고객!!

150개 ~~\$150~~ \$120
 300개 ~~\$250~~ \$200
 500개 ~~\$350~~ \$280

A형 B형 C형 D형 E형

A-F 까지 다양한 디자인과 뒷면에 한영성경구절 앞면에 교회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 junimmedia@gmail.com



헤브론 시내 모습



헤브론 막벨라 무덤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54)

족장들의 무덤 헤브론

헤브론의 위치와 뜻

헤브론은 팔레스타인 요르단 강 서안지구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요르단 강 서안 지구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지점과 해발 930m에 달하는 지점에 위치한다. 팔레스타인인 약 165,000명과 유대인 약 500명이 거주하며 이 중 유대인은 정착촌과 옛 시가지 주변에 거주한다.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로 여겨지는데 유대교에서는 예루살렘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성지로 여겨지며 4대 성지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아브라함과 이삭(리브가), 야곱(레아)의 무덤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막벨라 굴(이브라힘 모스크)이 있다. 요르단 강 서안지구 무역의 중심지이며 포도와 무화과, 석회석, 도자기 공예품과 유리 공예품, 유제품이 생산된다. 도시 이름은 히브리어로 '친구'를 뜻하는 단어인 '하베르'에서 유래했으며 아랍어 이름인 '알할릴'은 알라가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은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헤브론 역사 이야기

이곳은 연합 이스라엘 왕국의 왕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길 때까지 약 7년 동안 연합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다. 기원전 587년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지만 기원전 167년 유다 마카베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고 제1차 유대-로마 전쟁 때 로마 제국에 정복되었다. 135년 바르 코크바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로 끝났고 이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노예로 팔려 나갔다.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638년 정통 칼리파가 이끄는 군대

에게 정복되면서부터 이슬람 세력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교회도 모스크로 바뀌게 된다. 1099년 십자군에게 정복되었지만 1187년 살라딘이 이끄는 군대가 탈환했다. 16세기 오스만 제국에 편입되었고 1917년 영국의 위임통치령에 편입되었다. 1929년 아랍인들이 유대인 67명을 학살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헤브론을 떠났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래 요르단의 영토가 되었지만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에 점령되면서 병합되었고 유대인 정착촌이 건설되면서 유대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한다. 1980년 5월 2일 정통파 유대교 학생 6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터졌고 1994년 2월 25일에는 과격파 유대인 청년이 일으킨 막벨라 동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29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을 입었다. 1995년 9월 28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관할하는 도시가 되었고 1997년 1월 17일 헤브론 협정에 따라 시 전체 면적의 80%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소속 치안부대가 관할하게 되었고 나머지 20%

는 이스라엘군이 관할하게 되었다. **헤브론과 족장 이야기**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거처를 옮긴 것은 조카 롯과 땅을 나누는 다음 여호와와의 약속으로 장막을 옮기게 된 것이다. (창13:14-18)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축복이 헤브론에서 시작된 것이다. 롯의 사로잡힘 소식으로 헤브론에서 단까지 쫓아가 롯을 구출하기도 하였다. 오늘날도 헤브론에서 단까지 가려면 버스로 4시간 이상을 올라가야 하는데 당시로는 엄청난 거리의 여정이었다. 조카를 향한 삼촌의 뜨거운 사랑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곳에서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었고 100세에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을 입는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할례를 행하는 최초의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 후일에 브엘세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신교회

바로 거주지를 옮기지만 결국은 사라의 죽음으로 헤브론을 고향처럼 찾아오게 된다. 헤브론 곧 가랏 아르바에서 사라는 죽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헛 족속에게서 은 사백 세겔로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 지낸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결국 175세에 세상을 떠나 이삭과 이스마엘에 의해 마브레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된다. (창25장) **헤브론에 있는 족장들의 무덤** 헤롯 대왕이 헤브론에 건설한 웅장한 건물은 2,0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룩한 땅 중의 하나가 되었다. 가로 61m, 세로 36m, 높이 15m의 육면체의 건물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며, 사라를 매장할 무덤으로,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사용할 무덤으로 예브론으로부터 구입한 막벨라 굴 위에서 있다 (창23장). 지금도 그 건물에는 막벨라 굴에 장사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를 기념하는 큰 돌들이 나란히 누워 있다.


막벨라는 단지 오래된 무덤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유산이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인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정체성, 그 자체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아브라함에게서 찾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인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복의 증거가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막벨라는 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북쪽은 모스크로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으며 남쪽은 유대교 회당으로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은 양교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볼 수 있도록 해놓았지만 사실 무덤은 깊은 지하에 있어서 볼 수가 없다. 보이는 무덤은 모형에 불과하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야곱과 레아만 바라보고, 아랍인들은 모스크에서 이삭과 리브가만 바라본다. 가운데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볼 수 있지만 서로가 적대적인 그들에게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평화의 메시지, 생명의 교회가 되길 바란다. **(계속)**



막벨라의 이삭과 리브가 무덤



레아 무덤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2017년 겨울학기 신(편)입생 모집

참, (진리의 길)
알, (학문의 길)
살, (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 M.A 석사과정 | 48학점
-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12월 21일 개강

본교 지원시 특전

-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혁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 (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치유와 회복이 있고
꿈과 사랑이 가득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요
치유예배**

Healing & Happiness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나눔과 섬김의 교회

SHARING & SERVING CHURCH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천지만물을 완벽하게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인터뷰] 한국창조과학회 회장 한윤봉 교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마치 선언과도 같은 이 말로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서 끝난다.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 중 단 한 장, 31절 만에.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이 우주와 지구, 특히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한다.

그런데 간혹 이것을 따져 물어오는 이들이 있다. 주로 비기독교인들이다. 눈부신 과학의 발전으로, 생명의 기원마저 설명할 수 있다는 그들은 과연 신(神)이 있는지의 의문을 제기한다. 여기에 대한 기독교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다. 회피하거나 맞서거나. 문제는 후자다. 어떻게 맞설 것인가? 맞서야만 하는가?

지금까지 기독교는 대개 회피하는 쪽에 가까웠다. 기독교인이나 구원론만큼 정립된 ‘창조론’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인본주의가 팽배하고, 진화론이 맹위를 떨치는 시대, 기독교는 그 신앙을 변증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 앞에 있다. 본지는 얼마 전 소위 ‘박성진 논란’으로 세간에 회자된 한국창조과학회 회장, 한윤봉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를 만났다.

-진화론을 부정하나?
부정한다.

-이유는?
답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 두고 싶은 게 있다. 바로 지구와 우주, 그리고 생명의 기원 문제는 ‘과학적 실험’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여러 발견에 근거해 가설을 세우고, 가능한 한 그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완벽히 객관화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추론으로 그친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이들이 진화론만을 과학으로 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주와 지구의 나이가 각각 138억 년, 46억 년이라는 것도 그렇다. 그러므로 진화론과 창조론, 젊은 지구론과 오랜 지구론의 주장을 모두 편견 없이 살피는 것이 합리적 자세일 것이다.

이제 물음에 답하겠다.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에 진화론을 부정한다. 우선, 진화론의 기본 가정인 우연과 생명의 자연발생을 받아들일 수 없

다. 진화론을 흔히 과학이라고 믿고 있는데, 진화론이 우연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과학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 어떤 과학자도 자신의 학설이나 주장을 펼치고, 연구를 행함에 있어 우연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것, 이 역시 타당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생명은 결코 물질에서 나올 수 없다. 이것은 단지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신앙적 고백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사실이다. 인간을 포함해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생물진화론은 알고 보면 화학진화론의 토대 위에 있다. 아주 먼 옛날 단순한 원자들이 무작위적인 힘의 상호작용으로 정보를 포함하는 단백질이나 유전자가 됐고, 이것이 진화해 끝내 생명체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인데, 이는 과학적 실험으로 밝혀지지 않은 명백히 틀린 주장이다.

두 번째, 진화 메커니즘인 변이의 축적과 자연선택에 의해 한 종류의 생명체가 다른 종류의 생명체로 진화했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령 파충류가 새로 진화했다면, 그 중간 단계의 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은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 물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일어나는 같은 종(種) 안에서의 다양한 변이, 즉 소진화는 우리도 인정한다. 다시 말해 변이는 유전적 교배가 가능한 같은 종 내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 넘어 새로운 종류로까지 진화한다는, 이른바 대진화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장에서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하지 않으셨나? 각 생명체 종류마다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유전적 장벽이 있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진화했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그게 사실이라면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진화하는 단계의 중간 개체 화석들이 발견돼야 한다. 하지만 그런 적이 없다. 그저 종류별로 독립적인 가계도(family tree)를 보여줄 뿐이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진화주의가 아니라면, 진화과 진화 이론은 과학계의 주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는 입장은 어떤가?
그것이 과연 우리가 존중해야 할 만큼 과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는 이론인가? 그렇지 않다



한국창조과학회 회장 한윤봉 교수. 그는 “진화론을 흔히 과학이라고 믿고 있는데, 진화론이 우연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과학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 본다. 이는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다. 그리고 자연발생이나 자연선택과 같은 진화 이론에서 쓰이는 말들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일부 진화주의적 사고가 스며들어 있다. 자연은 결코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차라리 적자생존(適者生存)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변이 개체가 살아남은 것은 자연에 적응한 결과이지, 어떤 방향성에 따라 자연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진화론이 이토록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
사실 진화론이 창조론이 과학의 문제이기 이전에 세계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진화론이 팽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즉 창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신론 내지 반신론의 인본주의 때문일 것이다.

-한국창조과학회의 창조론은 무엇인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벽하고 성숙한 상태로 천지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이것은 신화나 비유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다. 창세기는 지구와 우주, 그리고 생명의 기원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면서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다. 창조의 현장에 계셨던 예수님도 역사적 사실로 인용하신 창세기의 내용들을 문

자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딤후 3:16)이기 때문에 한국창조과학회는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을 믿는다.

-창세기에 나타난 6일의 ‘일(日)’, 곧 하루는 어느 정도의 기간인가?
지금과 같은 24시간이다.

-창세기에서 해(Sun)는 넷째 날에 창조됐다. 그런데도 창세기의 하루가 24시간인가?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의하는 24시간의 하루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즉 자전을 뜻한다. 이것은 굳이 해가 없어도 가능하다.

-하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더라는 표현은 해의 존재를 전제한 것인가?
해 없이 빛만으로도 그건 가능하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바로 빛이다. 해는 발광체인데, 빛(光)이 먼저 있어야 발광도 가능한 것 아닌가? 마치 전자(電子)가 있을 다음에야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정리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더라’는 표현은 우선 빛이 있었다는 것이고 지구가 창조된 때부터 자전했다는 의미다. 이런 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나 조화롭고 오묘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창세기의 하루가 반드시 24시간이었다고 볼 근거는 없지 않은가? 지금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일단 창세기가 역사서라는 점을 분명해 해 둘 필요가 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 초기의 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시대의 역사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을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서술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창세기 1장의 하루 역시 24시간이 맞다. 히브리 사람들조차 그것을 24시간으로 이해해 안식일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닌가? 만약 창조의 하루가 그 이상 매우 긴 시간, 예컨대 1천 년이라면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 6천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다음, 1천 년 동안 일하지 않고 쉬어야 한다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창세기가 사실에 입각한 역사서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했으니 하나님도 사람처럼 생겼다는 것인가? 눈과 코, 입 등이 있는...
그렇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도 본 것’(요 14:8-9)이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2017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개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76288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유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범 목사
1818 S. Western Ave., Suite 41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인인정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땀끝까지 제자를 섬기 복음을 전하라(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213)381-7755 Fax.(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업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것'(요 14:8-9)이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면,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생겼다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런 육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육적 영적 의미를 아우르는 중의적 표현이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지구의 나이를 대략 6천 년에서 1만 년 사이로 보는가?
그렇다.

-왜 그런가?
성경에는 아담 창조 이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의 계보와, 창세기 10~11장에 걸쳐 기록된 노아 후손들의 족보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루터나 칼빈, 제임스 어셔, 해리스 등 신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6천 년에서 1만 년 사이로 계산했다. 이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건,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라기보다 순전히 신앙적 발로인가?
그런 것도 있지만, 지구의 나이가, 소위 과학적 계산이라는 46억 년처럼 많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들도 있고, 무엇보다 그 연대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현대 과학기술로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구 연대를 계산하는 데 자주 쓰이는 방사성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이 부정확하다는 것인가?

방사성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은 특정 방사성동위원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하게 붕괴한다는 원리를 이용해 현재 지구상에 남아 있는 해당 원소의 양을 측정, 이를 통해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46억 년이라는 나이도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모(母)원소의 '초기값'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처음에 있던 양을 알아야 그것을 현재 남아 있는 양과 비교해서 연대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대측정법에서 종종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가 '탄소-14'다. 그런데 이 원소로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연대는 고작해야 6만 년 정도다. 그러니까 그 이상 오래된 화석에서는 '탄소-14'가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면, 진화론자들이 수억 년 전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화석에선 '탄소-14'가 나와선 안 된다. 하지만 예외 없이 그 안에 이 원소가 있다.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보다는 훨씬 젊

다는 뜻 아닌가?

그리고 현재 지구 전체 지층의 약 75%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퇴적지층이다. 즉, 자갈이나 모래 같은 물질들이 차곡차곡 쌓여 형성된 지층이다. 그 단면을 보면 하나 같이 경계선이 평탄하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지층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라면, 각 층의 경계선이 침식과 풍화 등의 작용으로 인해 울퉁불퉁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 퇴적층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생겼다는 것이고, 이를 가능하게 한 어떤 거대한 격변이 있었다는 말이다.

-혹시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건가?

맞다. 창세기 6~9장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는 그 사용된 단어들과 문맥상 전 지구적 대홍수였음이 분명하다. 이에 따르면 1년여 동안 지속된 홍수로 인해 지면의 모든 생물들이 물에 쓸렸고, 높은 산들은 잠기고 말았다. 입자 크기와 성분 등에 따라 대륙 넓이로 퇴적되어 있는 광대한 수평 퇴적지층들, 연속적인 퇴적을 나타내는 매끄러운 지층경계면들, 부서짐 없이 휘어져 있는 두터운 습곡지층들, 고지대와 내륙 깊은 곳에서 발견되는 바다 생물 화석들, 막대한 양으로 분출되어 있는 용암들, 광대한 넓이의 침식 평탄면들, 수백 수천 킬로미터의 먼 거리까지 운반되어 있는 상당한 양의 모래와 자갈, 그리고 바위들, 대양에서 발견된 해저 산맥과 깊은 협곡들, 격변적으로 매몰되어 있는 수많은 동식물 화석들 등은 과거에 전 지구적 홍수가 실제로 있었음을 가리키고 있다.

-결국 노아의 홍수라는 격변도 지구가 젊다는 하나의 증거인 셈인가?

정확히 봤다. 창조과학회는 퇴적지층들이 장구한 시간에 걸쳐 느리고 점진적으로 쌓였다는 진화론적 동일과정설을 거부한다.

-그런 격변이 노아의 홍수만이 아니라 운석충돌과 같이 다중적으로 일어났다는 주장도 있다.

파지고 보면 그런 주장도 진화론적 지질시대와 연대를 사실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정말 수백만 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운석충돌에 의해 지층들이 형성됐다면, 그 격변과 격변 사이에 오랜 침식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랜드캐니언을 비롯한 퇴적지층들은 그런 침식의 흔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또 지층들이 동일하게 휘어져 생긴 습곡지층에 대해서도 다중격변설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발견에 근거해 이른바 '대폭발(빅뱅) 이론'이 도출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나?



한 교수는 "지구의 나이가, 소위 과학적 계산이라는 46억 년처럼 많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들도 있고, 무엇보다 그 연대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현대 과학기술로서 불가능하다"고 했다.

폭발은 그 어떤 질서도 만들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인 무질서만을 초래할 뿐이다. 우주를 보라. 얼마나 질서 있고 아름다운가. 이것이 폭발에 의한 것이라고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한 빅뱅 이론은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 그것을 역추적 하면 결국 매우 작은 한 점으로 모아진다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우주의 엄청난 에너지가 과연 그와 같은 점 안에 물리적으로 갇혀 있을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그러므로 우주의 팽창이라는 발견에 기초해 대폭발을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현재 천체물리학계에서도 다중우주론이나 끈장이론, 변하는 광속이론, 진동 우주론 등 다양한 우주 기원론이 논의되고 있다. 빅뱅 이론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럼 우주는 왜 팽창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성경에도 '하늘을 펼치셨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다. 결국 우주의 팽창과 빅뱅을 같이 묶으면 안 된다.

-얼마 전 포항공대 박성진 교수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그의 한국창조과학회 활동 이력이 논란이 됐다. 이것이 왜 논란이 됐다고 보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다. 한국창조과학회 활동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직무 능력 사이에 대체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아마 한국창조과학회와 기독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논란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한국창조과학회는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목적인가?

결단코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증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단지 우리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논리에 맞서, 하나님의 창조가 과학적으로도 사실임을 변증할 뿐이다.

-지금까지 했던 여러 주장들, 이를테면 젊은 지구론이나 단일 격변설 등이 만약 시간이 흘러 과학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입장을 철회할 용의가 있나?

물론이다. 우리는 그렇게 딱 막힌 단체가 아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창조 기록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성경의 모든 장이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성경의 토대이자 근간이다. 이것이 흔들리면 성경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주의의 물결에 맞서기가 어려워, 그런 고민에서 벗어나고자 그것과 타협해 버리면, 자칫 모든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는 우리의 노력을 근본주의라거나 맹신이라고 비판한다면, 가까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젊은이들이 과연 그런 입장을 수용할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건 교회에 과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이 없어서다. 그들에게 성경적인 창조신앙을 바로 교육할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든든히 설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부터 가졌나? 처음부터 창조과학회와 같은 입장이었나?

약 30년 전, 내 나이 33살 때 유학 중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 창조과학회의 존재도 알게 됐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 신앙을 비난했던 철저한 진화론자였다. 지구의 나이가 6천년 정도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도대체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만큼. 하지만 신앙이 생기고 성경을 읽으면서부터, 여전히 머리로 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가슴이 먼저 반응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내가, 어쩌면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것일지도 모를 진화론을 차분하게 따져보기 시작했던 것이다.

-끝으로 한국창조과학회의 계획은?

우리의 비전과 목표는 명확하다. 창조의 현장에 계셨던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로 인용하셨던 6일 창조와 전 지구적 노아의 홍수를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믿는, 성경적 창조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한국교회와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세우고 부흥하게 하는 불씨가 되는 것이다.

김진영 기자

축 성 탄

세미한교회는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사랑과 믿음의 예배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감동과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세미한교회

- 1) 세계인과 미국인과 한국인과 더불어 예배드리는 교회
- 2)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려 드리는 교회
- 3) 2세를 100% 세계인, 100% 미국인, 100% 한국인으로 키우는 교회



최병락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2:00
- 금요성령집회 금요일 오후 7:00
-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주소 및 전화

1615 W Belt Line Rd, Carrollton TX 75006
Tel) 972-446-0178
semihan.org

인랜드 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느 교회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15
- 3부예배 오전 11:45
-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 EM 1부예배 오전 9:30
- EM 2부예배 오전 11:45
-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inlandchurch.org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환자, 반드시 아연 섭취해야!

프로지 골드

PRO-Z GOLD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병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일수록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골드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 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37% 미세혈관 합병증	21% 당뇨병 관련사망	14% 심장마비	12% 뇌졸중
-------------------------------	------------------------	------------------------	--------------------	-------------------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0+Tax
3병 \$170+Tax
6병 \$33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